

스마트 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관련 콘텐츠 노출 원인 분석

Teenagers with Smartphones Exposed to Sexual Content

최정임*, 정동훈**

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Jeong-Yim Choi(kischoi@naver.com)*, Donghun Chung(donghunc@gmail.com)**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개인 미디어로 청소년들이 늘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성 관련 콘텐츠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속성, 개인적 속성, 그리고 미디어 이용시간이나 미디어의 종류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스마트폰의 성 관련 콘텐츠 이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학생, 고등학생, 아버지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자기통제성이 낮을수록, 또래동조와 차별접촉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으로 성 관련 콘텐츠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서 성 관련 콘텐츠의 의도적 노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남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자기통제성이 낮을수록, 차별접촉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으로 성 관련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의 노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성 관련 콘텐츠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 채널을 통한 건강한 성 관련 메시지의 전달 방법 등을 강구하고, 미디어 교육 등 미디어의 긍정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디어가 청소년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좋은 의미의 슈퍼피어(super-peer)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또래동조 | 성 | 스마트 폰 | 음란물 | 자기통제성 | 차별접촉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variables influence on teenagers' exposure to sexual content on their smartphone. For this, the present research used demographics, self-control, parental monitoring, conformity to peer groups, sensation seeking,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media use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applied survey method based on 449 teenager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a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high school graduated father exposed to sexual content more, and the lower self-control and higher conformity to peer groups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the more exposed to sexual content. Second, ma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intentionally exposing to sexual content more, and the lower self-control and higher differential association, the more intentionally exposing to sexual content.

■ keyword : | Self-control | Conformity to Peer Groups | Sensation Seeking | Differential Association |

I. 서론

성(sex)은 전통적으로 텔레비전, 광고, 잡지 등의 미

디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들 중 하나이고, 미디어는 성에 관한 정보, 즉 성욕, 성적 행위, 그리고 성과 관련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가 사용

접수일자 : 2014년 02월 28일

수정일자 : 2014년 04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4월 10일

교신저자 : 정동훈, e-mail : donghunc@gmail.com

하는 주요한 정보의 출처가 된다[1]. 미디어에서 보이는 성에 대한 표현은 더욱 개방적이고 빈번하게 표현되며,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성적 표현의 확산은 성을 더욱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미디어에서 보이는 성은 더욱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성 콘텐츠는 과거의 성 콘텐츠에 비하여 다양성(variety), 접근용이성(accessibility), 선택성(selection)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며 무한한 확산과 함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2].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 등 뉴미디어의 발달은 성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채널로 쉽게, 그리고 걸리지 않는 채 대중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성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급변하는 새로운 미디어에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하고, 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욕구 등을 갖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 비율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 연령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미디어의 성 관련 콘텐츠 이용에 대해 우려스러운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유해 미디어 경험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휴대폰을 이용한 성인 미디어 노출경험은 1년 사이에 7.3%에서 12.3%로 급격히 증가하였다[3]. 스마트폰은 개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에 비해 부모와 선생님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성 관련 콘텐츠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비밀스럽게 혼자 이용하기 쉬운 최적의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 및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 미디어로 청소년들이 늘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성 관련 콘텐츠 이용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성 관련 콘텐츠 노출

성 관련 콘텐츠란 매우 광범위한 정의로 성적인 행위의 노골적인 시각적 묘사에서부터 성적인 것에 대해 언급하고 대화하거나 연상시키는 등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미디어 생산물을 의미한다[4]. 예를 들어 노래가사에 성적 감정과 충동을 묘사하거나, 도발적인 복장과 성적인 몸짓으로 표현하거나, 성관계 등에 대해 대화하거나 노골적인 성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것 등 성에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텔레비전은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었던 성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었던 성교육자로서의 긍정적 역할과 반대로 성에 대해 왜곡된 기대를 하거나 편향적 성태도를 지니게 하는 등 유해하다고 볼 수 있는 부정적 역할의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5]. TV, 음악, 잡지 비디오게임 등의 성 콘텐츠 노출에 대한 3년간의 종단연구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출이 증가했고, 여자청소년은 노출량이 비교적 일정한 편이었다[6].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뮤직비디오의 경우에도 고등학생, 특히 남학생의 경우 대학생들보다도 성적으로 음란한 뮤직비디오를 더 선호하는 등[7] 청소년들 중 특히 남자청소년들이 주로 선정적 정보와 음란물에 보다 더 많이 노출되며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8-10]. 조숙한 여자청소년들은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성적인 내용을 볼 때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성적인 내용의 음악을 듣고, 잡지를 읽고, 또한 R 등급의 영화를 더 보려하면서 이렇게 미디어에서 본 내용들을 10대가 성관계를 가지도록 허용하는 메시지라고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매스 미디어가 이러한 조숙한 청소년들에게는 특별한 동료(super peer)역할을 하므로 성적으로 건강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1].

2. 성 관련 콘텐츠 노출 영향 변인

미디어의 노출 원인과 효과 사이에 어떤 매카니즘이 있는지, 왜 어떤 청소년들은 성 관련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찾아서 보는데 다른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지, 어떤 경우에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자들은 수많은 중재변인과 조절변

인을 찾아 연구를 계속해왔고 아직 무엇이 답이라고 분명한 설명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 관련 콘텐츠의 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문화적 속성, 개인적 속성, 그리고 미디어 이용 시간이나 미디어의 종류 등에 따라 많은 속성들을 그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나이, 성별, 가족 동거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속성들은 많은 연구에서 노출 정도와 원인 그리고 효과 등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청소년층에서는 나이가 더 많을수록 인터넷음란물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남자청소년들이 주로 선정적 정보와 음란물에 보다 더 많이 노출되며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10], 조숙한 여자청소년들은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성적인 내용을 볼 때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성적인 내용의 음악을 듣고, 잡지를 읽고, 또한 R 등급의 영화를 더 보려하면서 이렇게 미디어에서 본 내용들을 10대가 성관계를 가지도록 허용하는 메시지라고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개인의 심리적 속성에서는 대표적으로 자기통제성, 감각추구성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기통제성은 순간의 유혹에 취약한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나 비행의 원인이 인간의 내적, 개인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자기통제성에 기인한다[13]. 자기통제성은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비행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고[14],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 정보 노출에 대한 연구에서도 선정적인 사이트의 접촉 경험은 자기통제성이 결핍될수록 더 증가하였다[8].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시간이나 성충동도 자기통제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15],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비행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이 성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6]. 하지만 이와는 달리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 및 노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다수 있다[17-19]. 한편, 감각추구성이란 신체적·사회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다양하고 신기하며 복잡한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뜻

한다[20]. 감각추구성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자기통제성과 함께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많이 연구되었는데[21-23],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경우, 감각추구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음란물을 더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9][24][25], 청소년·성인 모두 감각추구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낮을수록 인터넷 음란물 더 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6].

청소년들에게 개인의 심리적 속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모와 친구와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상태도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속성 중에는 부모의 지지, 감독·통제와 같은 부모의 역할이 포함되는데, 부모 특히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감독할수록 자녀의 성행동이 늦게 나타나고[27], 부모의 감독이 소홀할 때 자녀의 성행동이 증가하는 등[28]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상태도나 성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9]. 하지만 부모의 감독이 자녀의 성행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어[30][31],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어린이들의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인터넷 숙련도나 직접 통제, 인터넷 이용규제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연구 결과[8][32]와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부모 감독이나 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17][19][24]가 보고된 바 있으며, 또한 부모 애착이나 부모 감독이 의도적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기존 미디어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18]. 이는 미디어의 형태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 차이에 따라 부모의 감독이나 통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친구관계는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맺고 있는 심리적 정서적 유대감으로서 ‘친구로부터 인지된 사랑, 관심, 위로, 도움 등에 의해 형성되는 긍정적 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양소정[18]의 연구에서는 기존미디어 음란물 노출과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이나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따른 성비행에도 친구관계가 나쁠수록 영향을 끼쳤다[14][33]. 또한,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보다는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래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또래동조는 청소년기 발달 특성상 부모로부터의 독립과정에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 또래집단 내에서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또래집단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또래의 행동에 동조하는 경향을 가진다. 청소년의 성발달과 음란물 접촉 경험 등에서 또래동조의 영향이 나타난다[34]. 인터넷 음란물을 의도적으로 이용할 때 친구와 함께 친구의 집에서 이용한다는 결과 또한 또래동조의 영향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12]. 마지막으로, 차별접촉이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대표적인데 가장 중요한 변인은 비행 친구와의 교제의 유무이다. 즉, 비행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일탈행정의 학습하게 되고 이것이 곧 비행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다[35].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성관련 일탈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친구가 성 관련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그러한 친구들이 많다고 인식하는 것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고[36], 양소정[18]의 연구에서도 의도적,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기존 미디어 음란물 노출 모두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사이버상의 음란물 접촉이나, 선정적 정보 접촉에는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영향을 끼치고[8][16], 양소정[18]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량이 의도적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유정[17]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시간이 인터넷 음란물이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변인이 성 관련 콘텐츠 노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은 개인미디어로써,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미디어적 특징을 지닌다. 이는 곧 청소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눈을 피해 이전의 어떤 미디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고 간단하게 성 관련 콘텐츠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1에서는 이와 같은 스마트폰의 미디어적 특성과 청소년의 성 관련 콘텐츠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1. 스마트폰을 통한 성 관련 노출에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적 속성, 그리고 미디어 이용 시간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1. 스마트폰에서 성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는 정도에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적 속성, 그리고 미디어 이용 시간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2. 스마트폰에서 성 관련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정도에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적 속성, 그리고 미디어 이용 시간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1 표집

본 연구의 자료는 인천지역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학교 방문은 사전에 허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의 수업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조사에 응당한 인원은 총 449명이었으며,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설문에 응하기 어려운 고등학교 3학년 집단은 제외하고 실시하였다. 응답자 분포는 남학생 226명(50.3%), 여학생 223명(49.7%), 그리고 평균연령은 16.23세($SD=1.47$)였다. 재학 중인 학교 유형으로는 남녀공학고등학교(21.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자고등학교(17.8%), 남자중학교(16.7%), 여자중학교(16.5%), 남녀공학중학교(13.8%), 남자고등학교(13.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학 중인 학년은 고1(27.6%)이 가장 많았으며 고2(25.8%), 중1(15.6%), 중2(15.6%), 중3(15.4%) 순으로 나타났다.

1.2 측정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출생년도, 재학 학교, 양부모동거, 학교중식지원,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

력, 종교, 성적 등을 사용하였다. 이때 재학학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였으며, 양부모동거는 어머니와 아버지 중 한 분 이하와 동거와 두 분 모두 동거로 구분하였다. 학교중식지원은 지원과 미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아버지 및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미만과 대학교 이상 졸업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교는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성적은 하, 중하, 중, 중상, 상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M=3.16, SD=1.12$).

자기통제성은 백혜정·김은정[37]이 이용한 척도를 참고하였는데 이는 원래 가트프래드슨과 허쉬[13]의 자기통제력 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와 김현숙[38]이 재구성한 자기통제평정척도를 이계원[39]이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총 20문항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M=3.43, SD=.44, \alpha=.81$). 부모감독은 양소정[18]이 이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허쉬[40]와 지베르딩 등[41]을 재구성한 것으로 7문항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M=3.46, SD=.81, \alpha=.85$). 친구관계는 보 등[42]의 사회지지평가 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 scale)를 한미현[43]이 번역한 것 중 친구의 지지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해 7문항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M=3.79, SD=.69, \alpha=.90$). 또래동조는 류나미[44]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사용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또래동조성향의 4문항과 비행동조성향의 3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M=2.91, SD=.59, \alpha=.68$). 감각추구성은 호일 등[45]이 재구성한 축약된 감각추구성 척도(The Brief Sensation Seeking Scale)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 내용을 제외시키고 번역하여 7문항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M=3.08, SD=.83, \alpha=.77$). 차별접촉은 피터와 발켄버그[36]가 이용한 성관계 경험친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항 3개를 번역한 것과, 양소정[18]이 선행연구[46]를 통해 재구성한 문항을 연구 목적에 따라 수정 보완한 문항 3개를 합하여 총 6문항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M=2.03, SD=.76, \alpha=.75$).

스마트폰 성 관련 콘텐츠 이용은 여러 미디어 중 성 관련 콘텐츠를 주로 무엇으로 이용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그 중 스마트폰의 성 관련 콘텐츠

를 이용하는 정도($M=2.43, SD=1.46$)를 이용해 노출 현황을 측정하였다. 스마트폰에서의 성 관련 콘텐츠의 의도적 이용은 피터와 발켄버그[47], 로와 웨이[48]의 연구에서의 지난 6개월 간의 인터넷 음란물 유형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뒤 사용하였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스마트폰을 통해 ‘여성이나 남성의 몸의 섹시함을 강조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 사진,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본 적이 있다, ‘의도적으로 가슴이나 성기가 노출 또는 묘사된 내용의 글이나 그림, 사진,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의도적으로 성관계의 행동이 묘사된 글이나 그림, 사진,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등 총 3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M=2.02, SD=1.32, \alpha=.95$).

마지막으로 미디어 이용시간은 컴퓨터, 스마트폰, TV, 인쇄물(소설, 잡지, 만화), 비디오나 DVD, 극장 등의 미디어에 있어, 주중 및 주말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합한 값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스마트폰의 성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는 정도와 스마트폰 성 관련 콘텐츠의 의도적 이용 정도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스마트폰에서 성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투입한 모델 1을 살펴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스마트폰으로 성 관련 콘텐츠를 덜 이용하고($\beta = -.18, p < .001$),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더 이용하며($\beta = .37, p < .001$),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교 이상인 학생은 그 미만인 아버지를 둔 학생에 비해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2, p < .05$). 그리고 이 모델의 전체 설명력은 13%였다($F(9, 407)=6.62, p < .001$). 모델 1에 개인성향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 2를 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더 이용하고($\beta = .22, p < .01$), 자기통제성이 낮을수록($\beta = -.14, p < .01$), 또래동조가 높을수록($\beta = .09, p < .05$), 차별접촉이 높을수록($\beta = .38, p < .001$) 스마트폰으로 성 관련 콘텐츠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모델의 전체 설명력은 35%였다($F(15,$

401)=14.18, $p<.001$]. 마지막으로 모델 2에 미디어 이용 시간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 3을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스마트폰으로 성 관련 콘텐츠를 덜 이용하고($\beta = -.09, p<.05$),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더 이용하며($\beta = .21, p<.01$), 자기통제성이 낮을수록($\beta = -.13, p<.05$), 차별접촉이 높을수록($\beta = .37, p<.001$)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모델의 전체 설명력은 36%였다[F(21, 392)=10.40, $p<.001$].

표 1. 스마트폰에서의 성 관련 콘텐츠 이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인구 사회학적 속성	성별(1=여학생)	-.18***	-.08	-.09*
	나이	.14	.14	.12
	재학학교(1=고등학교)	.37***	.22**	.21**
	부모동거(1=양부모동거)	-.08	-.05	-.05
	학교중식지원(1=미지원)	-.04	-.04	-.03
	아버지 학력(1=대학교 이상)	-.12*	-.07	-.05
	어머니 학력(1=대학교 이상)	.03	-.03	-.03
	종교(1=없음)	.01	-.02	-.02
	성적	-.02	.03	.05
	개인적 속성	자기통제성		-.14**
부모감독			-.08	-.07
친구관계			.07	.07
또래동조			.09°	.07
감각추구성			.05	.05
차별접촉			.38***	.37***
미디어 이용시간	컴퓨터			.05
	스마트폰			.08
	TV			-.01
	인쇄물(소설, 잡지, 만화)			.04
	비디오나 DVD			.00
	극장			-.01
R^2	.13	.35	.36	
F	6.62***	14.18***	10.40***	

* $p<.05$, ** $p<.01$, *** $p<.001$, ° $p=.05$

다음으로, 스마트폰에서 성 관련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투입한 모델 1을 살펴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스마트폰으로 성 관련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덜 이용하고($\beta = -.31, p<.001$),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8, p<.01$). 그리고 이 모델의 전체 설명력은 19%였다[F(9, 407)=10.47, $p<.001$]. 모델 1에 개인성향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 2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덜 이용하고($\beta = -.24, p<.001$), 자기통제성이 낮을수록($\beta = -.13, p<.01$), 차별접촉이 높을수록($\beta = .33, p<.001$) 스마트폰으로 성 관련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모델의 전체 설명력은 35%였다[F(15, 401)=14.09, $p<.001$]. 마지막으로 모델 2에 미디어 이용시간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 3을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덜 이용하고($\beta = -.27, p<.001$), 자기통제성이 낮을수록($\beta = -.13, p<.05$), 차별접촉이 높을수록($\beta = .31, p<.001$) 스마트폰으로 성 관련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모델의 전체 설명력은 37%였다[F(21, 392)=10.80, $p<.001$].

표 2. 스마트폰에서의 성 관련 콘텐츠 의도적 이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인구사회학적 속성	성별(1=여학생)	-.31***	-.24***	-.27***
	출생년도	.03	.02	-.00
	재학학교(1=고등학교)	.28**	.15	.15
	부모동거(1=양부모동거)	-.05	-.03	-.03
	학교중식지원(1=미지원)	-.04	-.05	-.03
	아버지 학력(1=대학교 이상)	-.05	-.01	.00
	어머니 학력(1=대학교 이상)	-.00	-.05	-.05
	종교(1=없음)	.05	.02	.01
	성적	-.00	.04	.06
	개인적 속성	자기통제성		-.13**
부모감독			-.04	-.03
친구관계			.09	.08
또래동조			.06	.05
감각추구성			.04	.04
차별접촉			.33***	.31***
미디어 이용시간	컴퓨터			.02
	스마트폰			.09
	TV			.02
	인쇄물(소설, 잡지, 만화)			.08
	비디오나 DVD			.06
	극장			-.02
R^2	.19	.35	.37	
F	10.47***	14.09***	10.80***	

* $p<.05$, ** $p<.01$, *** $p<.001$

V. 결론

스마트폰의 성 관련 콘텐츠 이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학생, 고등학생, 아버지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자기통제성이 낮을수록, 또래동조와 차별접촉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으로 성 관련 콘텐츠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서 성 관련 콘텐츠의 의도적 노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남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자기통제성이 낮을수록, 차별접촉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으로 성 관련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더 많이 노출되며 성장하고[10], 성별의 차이는 전통미디어에서보다 인터넷 음란물에서 더 큰 폭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와 같고[49], 자기통제성의 경우 인터넷 음란물 이용 및 노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들[17-19]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자기통제력이 낮으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비행이 증가한다는 연구[50]와, 자기통제성이 결핍될수록 미디어의 선정적 정보 접촉 경험도 증가한다는 연구[8]와 일치하여 자기통제성이 성 관련 콘텐츠의 의도적 노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마트폰의 경우 개별사용자의 통제권이 크다는 특성에, 질풍 노도의 시기가 일컬어지는 청소년기의 특성이 결합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의 방안으로는 특히 성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 심각한 음란물의 차단 앱과 같은 기술적인 방안으로도 접근해야겠지만, 외부(부모와 학교 등)의 압력에 의한 미디어 통제로 청소년의 자기통제성 발달 기회를 빼앗지 말고, 청소년 스스로 미디어를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성관련 경험이 있거나 성관련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대화하는 친구들과의 차별접촉이 유의미한 것은 기존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서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들[18][36]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의 차별접촉은 비행 성태도나 성행동의 결과가 아닌 성 관련 콘텐츠의 의도적 노출이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들이 주는 정보와 대화 내용, 또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청소년기 호기심 충족의 결과로 나타났거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제시되는 우리 사회의 성 관련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정보 획득의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미디어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성 관련 콘텐츠를 어떤 미디어에서 주로 이용하며, 의도적이든 우연적이든 노출 경로와 노출 정도 등에 관한 현황과 스마트폰을 통한 성 관련 콘텐츠 노출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끼쳤는지를 조사하였다. 뉴미디어 특히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청소년들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성 관련 콘텐츠에 대한 노출도 더욱 쉬워졌기 때문에 청소년과 스마트 폰을 통한 성 관련 콘텐츠에 관한 연구는 그 의미가 중대하다. 특히 이용 현황을 살펴 본 미디어의 종류 중 청소년들이 압도적인 이용시간을 보인 스마트폰(휴대용 모바일 기기)을 통한 성 관련 콘텐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성의 개방화 풍조와 함께 성의 도구화, 성의 상품화로 인해 각종 미디어를 통해 노골화된 성적 표현물들이 범람하고 있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지식과 성인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신체적·심리적 변화의 갈등과 혼란속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성태도와 성행동을 가지게 되고 또한 표출하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성 관련 콘텐츠 노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 뿐 만 아니라 성 관련 콘텐츠 노출이 청소년의 성태도나 성행동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성적 발달에 과정에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성숙되어 건강한 성인이 되는 준비를 하는 시기로서 자신의 성역할, 성태도, 성행동 등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성 관련 정보에 노출될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미디어의 성 관련 콘텐츠 특히, 뉴미디어에서의 음란물 노출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이용에 대해 우려스러운 결과들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미디어 융합매체의 위험특성 중 '음란' 등의 유해콘텐츠의 위험에 대해 사회문화적 차원의 위험 유형으로 보고 법제도를 강화하여 예방하고 관련자 처벌 및 위험대응 교육이라는 사후처리를 취해야[51] 하고,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개별적 사용이 가능하여 부모나 교사의 통제와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에 함께 고려되어야[52]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음란물의 노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성 관련 콘텐츠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 채널을 통한 건강성 관련 메시지의 전달 방법 등을 강구하고, 미디어 교육 등 미디어의 긍정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디어가 청소년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좋은 의미의 슈퍼피어(super-peer)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R. J. Harris, *A Cognitive Psychology of Mass Communication*, 1989, 이창근 김광수 공역, 매스 미디어 심리학, 나남출판, 1991.
- [2] A. Barak and W. Fisher, "The future of Internet sexuality," In A. Cooper(ed.), *Sex and the Internet: A guide book for clinician*, pp.267-280, Brunner-Routledge, 2001.
- [3] 이유진, *청소년 유해환경점측 종합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여성가족부, 2012.
- [4] E. Gruber and H. Thau, "Sexually Related Content on Television and Adolescents of Color: Media Theory, Physiological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Impact", *The Journal of Negro Education*, Vol.72, No.4, pp.438-456, 2003.
- [5] L. Ward and R. Rivadeneyra, "Contributions of Entertainment Television to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nd Expectations : The Role of Viewing Amount Versus Viewer Involvement," *The Journal of Sex Research*, Vol.36, No.3, pp.237-249, 1999.
- [6] M. Hennessy, A. Bleakley, M. Fishbein, and A. Jordan, "Estimating the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 Sexual Behavior and Exposure to Sexual Media Content," *Journal of Sex Res.*, Vol.46, No.6, pp.586-596, 2009.
- [7] B. Primack, M. Gold, E. Schwarz, and M. Dalton, "Degrading and Non-Degrading Sex in Popular Music : A Content Analysis," *Public Health Report*, Vol.123, pp.593-600, 2008.
- [8] 김은미, 나은영, 박소라,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정보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2호, pp.209-257, 2007.
- [9] J. Brown and K. L'Engle, "X-Rated :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Associated With U.S. Early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edia," *Communication Research*, Vol.36, No.1, pp.129-151, 2009.
- [10] M. Flood, "The Harms of Pornography Exposure Among Children and Young People," *Child Abuse Review*, Vol.18, pp.384-400, 2009.
- [11] J. Brown, C. Halpern, and K. L'Engle, "Mass media as a sexual super peer for early maturing girl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36, pp.420-427, 2005.
- [12] J. Wolak, K. Mitchell, and D. Finkelhor, "Unwanted and wanted exposure to online pornography in a national sample of youth internet users," *Pediatrics*, Vol.119, No.2, pp.247-257, 2007.
- [13] M. Gottfredson and T. Hirshi,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14] 남영옥,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비행의 심리사회적 변인",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1호, pp.167-192, 2004.
- [15] 김보화, 이정윤,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청소년

- 의 성충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력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제11권, 제3호, pp.1221-1236, 2010.
- [16] 이성식,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설명요인에 관한 일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1호(통권 제57호), pp.121-154, 2004.
- [17] 김유정, “청소년들의 개인적 요인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이용 후의 성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6호, pp.45-84, 2010.
- [18] 양소정,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19] 최명일,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음란물 노출이 실제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2호, pp.49-69, 2009.
- [20] M. Zuckerman, *Sensation seeking*, 1979,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John Wiley & Sons Online, 2010.
- [21] 박현숙, 정선영, “청소년의 위험행동 구조모형 구축”, 대한간호학회지, 제41권, 제3호, pp.364-373, 2011.
- [22] 한상철, “감각추구성향과 대처전략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17권, 제4호, pp.1-26, 2003.
- [23] 한상철, “중소도시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측요인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3호, pp.193-210, 2004.
- [24] J. Peter and P. Valkenburg,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 on the Internet,” *Communication Research*, Vol.56, pp.178-204, 2006.
- [25] R. Weisskirch and L. Murphy, “Friends, porn, and punk: Sensation seeking in personal relationships, Internet activities and music preference among college students,” *Adolescence*, Vol.39, Issue 154, pp.189-201, 2004.
- [26] J. Peter and P. Valkenburg, “The Use of Sexually Explicit Internet Material and Its Antecedents: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Adolescents and Adults,” *Arch Sex Behav*, Vol.40, pp.1015-1025, 2011.
- [27] L. Schreck, “Adolescent sexual activity is affected more by mothers’ attitudes and behavior than by family structure,”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31, No.4, pp.200-201, 1999.
- [28] A. Abrahamse, P. Morrison, and C. Waite, “Teenagers willingness to consider single parenthood: Who is at greater risk?,”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20, pp.13-18, 1998.
- [29] 하상희, 이주연, 정혜정, “성과 관련된 부모역할이 대학생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pp.271-286, 2006.
- [30] 윤경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성행동과 관련된 요인들”,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8호, pp.107-121, 2002.
- [31] C. Smith,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sexual activity among urban adolescents,” *Social Work*, Vol.42, No.4, pp.334-346, 1997.
- [32] C. Cho and H. Cheon, “Children’s Exposure to Negative Internet Content: Effects of Family Contex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9, No.4, pp.488-509, 2005.
- [33] 남영옥,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성중독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문제행동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0권, pp.173-207, 2002.
- [34] 신미, 유미숙, “청소년 성발달과 잠재비행간 경로에 대한 구조모형분석”, 아동학회지, 제32권, 제3호, pp.91-105, 2011.
- [35] 김정규, “청소년비행 원인의 비교 분석”,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pp.159-189, 2009.
- [36] J. Peter and P. Valkenburg,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Internet Material, Sexual Uncertainty, and Attitudes Toward

- Uncommitted Sexual Exploration : Is There a Link?," *Communication Research*, Vol.35, No.5, pp.579-601, 2008.
- [37] 백혜정, 김은정, *청소년 성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연구보고08-R0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 [38] 김현숙,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39] 이계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40] T. Hirshi,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 [41] J. Sieverding, N. Adler, S. Witt, and J. Ellen, "The influence of parental monitoring on adolescent sexual initiation,"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Vol.159, pp.724-729, 2005
- [42] A. Vaux, J. Phillips, L. Holly, B. Thomson, D. Williams, and D. Stewart, "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S-A) scale: Studi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4, pp.195-219, 1986.
- [43] 한미현,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44] 류나미, *청소년의 개인특성, 부모특성과 대중매체 환경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음주기대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45] R. Hoyle, M. Stephenson, P. Palmgreen, E. Lorch, and R. Donohew,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brief measure of sensation seek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ol.32, pp.401-414, 2002.
- [46] R. Jessor, J. Van Den Bos, J. Vanderryn, F. Costa, and M. Turbin,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1, pp.923-933, 1995.
- [47] J. Peter and P. Valkenburg,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and recreational attitudes toward sex,"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6, pp.639-660, 2006.
- [48] V. Lo and R. Wei,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Taiwanese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9, pp.221-237, 2005.
- [49] D. Shek and C. Ma, "Consumption of Pornographic Materials among Hong Kong Early Adolescents : A Replication,"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pp.1-8, 2012.
- [50] 이성식,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비행 원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 pp.153-175, 2010.
- [51] 조항민, "디지털미디어 등장과 새로운 위험유형 - 융합매체로서 스마트폰의 위험특성과 사용자 위험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8호, pp.353-364, 2011
- [52] 김병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pp.208-217, 2013.

저 자 소 개

최 정 임(Jeong-Yim Choi)

정희원



- 1991년 2월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가정학사)
- 1994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가정교육전공(가정학석사)
- 2012년 8월 : 광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 휴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효과

정 동 훈(Donghun Chung)

정회원



- 2004년 8월 : 미시간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커뮤니케이션 박사)
- 2004년 9월 ~ 2005년 5월 : 오하이오대학 커뮤니케이션학부 연구원

- 2005년 6월 ~ 2007년 8월 : 아칸사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2013년 3월 ~ 2014년 2월 : 컬럼비아대학교 컴퓨터사이언스학과 방문연구원
- 2007년 9월 ~ 현재 :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광운대학교 Comm. & Tech. Lab. 소장

<관심분야> : 디지털미디어이용, HCI(Usability Testing), 디지털마케팅/PR